

보르도 화이트에 빠질 시간 “韓시장 성장세 주목”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인터뷰

佛 로낭 라보르드 보르도 그랑크뤼연합 회장



로낭 라보르드 보르도 그랑크뤼연합(UGCB) 회장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UGCB와 보르도 2021 빈티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홈스코치 시즌(구 소펙사 코리아)

“보르도 와인은 해마다 아로마도, 밀도도 다르다. 매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다. 여기에 포도나무를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을 대는 관개농업 등이 금지되다 보니 작황을 예측할 수 없듯, 매년 어떤 와인이 탄생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생산자도, 소비자도 해마다 빈티지가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뿐이다.

프랑스 보르도 그랑크뤼 연합(UGCB)의 로낭 라보르드 회장은 지난달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2024 보르도 그랑크뤼 전문인 시음회’에 참석해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2021년은 드라이 화이트 와인에 최적의 기후 조건으로 신선하며 화려한 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레드 와인 역시 아로마의 표현력이 뛰어나며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라보르드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UGCB를 이끌고 있으며, 보르도 포름을 지역에 위치한 와이너리 샤프트 클리네의 오너이기도 하다.

UGCB가 주최하고 홈스코치 시즌(구 소펙사 코리아)이 주관한 이번 시음회는 65개 그랑크뤼 와이너리들이 한국을 방문해 2021년 빈티지를 선보인 자리였다.

‘그랑크뤼(Grand Cru)’는 프랑스어로 뛰어난 포도밭을 뜻한다.

매우 우수한 품질의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나 포도밭에 부여되는 명칭이다. 현재 132개의 최고 샤프들로 구

성된 UGCB는 1973년에 설립됐다. 수확을 끝내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생산자들이 30여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직접 와인을 소개한다. 와인 애호가 입장에서는 연말이면 새로운 빈티지를 경험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와인 행사 중 하나다. 올해도 800명에 가까운 와인 수입업체와 소믈리에 등이 참석했다.

2021년은 최근 몇 년만에 극단적인 기후가 없었던 해였다. 따뜻해 일찍 재배를 시작했지만 수확은 예년과 비슷했다. 그만큼 포도가 천천히 익어갔고, 부드럽게 숙성했다. 포도가 충분히 익으면서도 신선할 수 있었다.

라보르드 회장은 “고온 건조했던 2020년과 비교하면 2021년은 보르도의 특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균형과 순수미를 느낄 수 있다”며 “빈티지 특성도 있지만 10여년 전부터 보르도 와인은 그랑크뤼라도 숙성잠재력도 있지만 바로 마셔도 좋은 와인으로 만들어 지고 있

다”고 설명했다.

한국 와인시장에서 보르도 와인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 하다. UGCB의 아시아 투어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생산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그는 “한국은 보르도 그랑크뤼에 있어 중요한 시장으로 2022년 수입량이 2020년 대비 3배 가 늘었다”며 “올해 전 세계 와인 소비가 다소 줄었다고 해도 한국 시장의 성장세는 다른 국가 대비 유독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보르도 그랑크뤼 와인 수입국가를 규모로 보면 한국은 10위 안팎이다. 20년전 만해도 20위 밖에 있었다.

라보르드 회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음 행사를 넘어 보르도와 한국 간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고 깊은지를 잘 보여줬다”며 “UGCB는 한국과의 이런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진실과 팩트 사이 ‘혼동’

모임 내 A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그는 사람들에게 “학교는 어디 나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집은 어디냐” 등을 묻곤 했다. 누군가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좋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또 다른 이는 ‘신상 명세를 캐서 약점을 잡으려 한다’면서 그를 꺼림칙해했다. A의 같은 행동을 두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게 흥미로웠다. 더 재밌는 건 A가 위 질문들을 모든 이에게 반복해서 던졌다는 것이었다. 그는 타인에게 관심이 있지도,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들려고 한 것도 아닌 그냥 딱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질문 세례를 퍼부은 것뿐이었다.

정신과 전문의 양창순 박사가 쓴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는 우리가 진실과 팩트를 혼동한다고 지적한다. 대개는 그들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진실과 팩트가 다르며 그 사이에서 얼마든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책은 밝힌다. 예컨대 길을 가는데 누가 나를 쳐다본다고 하자.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건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노려본다고 생각하면 피해의식이 생겨난다. 만일 그가 내 용모에 반해서 눈으로 쫓는다고 여긴다면 약간의 과대망상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다.

저자는 “우리가 어떤 때는 길 가는 사람을 아무 뜻 없이 쳐다보듯, 남들도 내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면서 “그렇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양창순 지음/다산북스

지 않고 ‘왜 나한테?’라며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진다”고 말한다. 이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일반적이면서 특수하다. 내게 생긴 문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겪을 수 있는 문제란 뜻이다”며 “일반화해 볼 수 있을 때 우리 그 문제를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능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책은 이 세상에 상대방이 100% 잘못하고, 나는 100% 잘해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나의 문제와 상대방의 문제가 만났을 때 일이 잘못되고 꼬이는 법”이라며 “처음부터 잘못된 상대라는 것을 알고 만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일침을 놓는다.

일이 잘못돼 원망과 피해의식이 쌓일 때 나의 문제는 어디까지인지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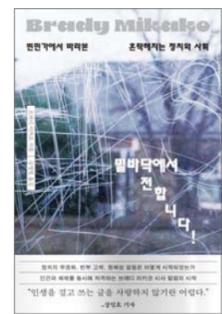
258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ik1@

밀바닥에서 전합니다!

책의 저자는 일본에서 영국으로 이주해 빈민가에 정착한 브래디 미카코다. 트럭 운전사인 그의 배우자는 노동자 계급 출신으로 평생을 노동당에 투표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극우 정당 지지를 선언한다. 책은 전통적으로 노동당 지지층이던 빈민층이 이주민과의 일자리 싸움에 지쳐 극우 정당으로 돌아서는 과정을 추적한다. 일자리는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에게 옮겨

가고 실업자가 된 영국인은 빈민으로 전락한다. 저임금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그들의 위에는 인건비를 줄이며 이익만 쫓는 상류층이 있다. 저자는 “영국의 하층민이 극우 정당에 올라탄 것은 오랫동안 상층의 정치가 하층민을 완전히 무시해왔기 때문”이라며 “하층민의 우경화는 정치에 대한 복수라 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한다.

384쪽. 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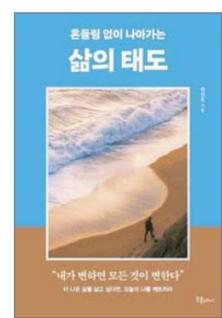
브래디 미카코 지음/김영현 옮김/다다사재

삶의 태도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시키지 말기, 욕 안 하기, 짜증 부리지 않기...’ 매년 새해가 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는 결심들이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이러한 다짐들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는 걸까.’ 지난 40년간 ‘인간의 마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해온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다. 그건 바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삶의 태도였다. 책은 변화를 이끌 5가지 마법의 도구로 ▲유머 ▲공감 ▲회복력 ▲메타인지 ▲긍정 심리학을 제시한다. “아기의 첫걸음이 미미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첫발을 떼고 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듯이, 작은 시작이 있어야 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380쪽. 2만2000원.



반건호 지음/북플레저

가장 평범한 아픔

한국은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다. 지난 2022년 기준 일곱 가구 중 1가구가 빈곤층에 해당하며,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40.4%에 달한다. 허나 ‘가난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극소수다.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수년째 3퍼센트라는 견고한 철옹성을 지키고 있다. 책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사건이, 이미 버틸 수 있는 한도의 경계에 다

다른 이들에게는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역경과 고통은 우리 몸에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상처를 남긴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모두가 건강권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공병원’과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건강권의 기본 요소라고 말한다.

308쪽. 1만8000원. /김현정 기자



김명희 지음/이글루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일본, 올해의 한자로 金 선정... “비자금문제, 올림픽 등 이유”
- ▲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서 첫 철수

/사진 뉴스3

- ▲ 헝가리 “젤렌스키, 헝탄휴전 거부”
- ▲ 캐나다, 기준금리 0.5%p인하 “트럼프 관세 탓”



- ▲ 외신,尹 ‘내란죄 불성립 호소’ 4차 당화 긴급 타진
- ▲ 美 하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가결

/사진 뉴스3